

第一編 歷史의 文化와 香氣

第一章 고장을 빛낸 사람

第1節 人 物 (其一)

1. 實學의 先覺者 安鼎福

安鼎福先生은 廣州가 낳은 偉大한 學者이니, 그는 1712年(肅宗 三十八)~1791年(正祖 十五)間의 朝鮮學者로서 字는 百順이며, 號는 順菴이니 感은 漢山病隱虞夷子 또는 橡軒이라고도 한다. 其의 本貫은 廣州이며, 戶曹參判極의 아들이다. 그는 提川出身 李翼의 文人으로 1749年(英祖 二十五年) 친거로 厚陵參奉이 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있다가, 萬寧 參奉이 되고 1751年에 義盈庫封事가 되었으며, 其 다음해에 靖陵直長이 되었다. 이어서 歸厚署別 提監察等을 歷任하고 辭職하였다. 其后 1765年에 濟用監主簿 依禁府都事が 되었으나 모一斗 就任하지 않았고, 1772年(英祖 四十八)에 世子翼衛事翼讚, 世孫師父가 되고 다음해 세자 翼衛事 위솔등을 歷任하여 世孫正祖를 補導하였다. 1775年에 懷仁縣監翼讚을 지내고 痘으로 弊退하였다가 이듬해 木川縣監이 되여 대단한 善政을 베풀어 모一斗 고을사람들이 感伏하고 따르는자 많았다. 그후 1783年 敦寧府主簿가 되고 1789年 첨知中樞府事를 거쳐 이듬해 동지중추부사에 올라 廣成君에 封해졌다. 李滉을 師孰했고 李翼의 學文을 繼承하여 利用厚生의 面을 學文의 眞目的으로 하는 生活을 깊이 研究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歷史에 傳統과 脈을 깊이 研究하여, 東史綱目을 編述, 從來 잘못되었든 歷史地理學을 細密히 考證하여, 유창한 文筆로 날카로히 비판을 加했으며, 天主教에 對해서는 비판적인 態度를 取하여 當時 學者들의 天主敎依를 경고하였다. 후일 좌참찬의 追贈되었으며 文肅이라는 謂號를 나리였다. 著書로 順菴集, 橡軒隨筆, 編書雜封說, 希賢錄, 성호사설類選, 家禮集解, 洪範演義, 歷朝通紀, 住官正要 等 아주 貴重한 글을 남기였으니 茶山 丁若鏞先生과 더불어 廣州가 낳은 偉大한 實學者이다.

2. 安敏永(天才歌人)

安敏永은 字는 聖武 또는 荆甫이며 號는 周翁이니 李朝哲宗時의 廣州에서 난 뛰어난 歌人이였다. 其는 庶子出身으로 벼슬길이 여의치않차 科舉를 斷念한 后 스스로의 마음을 달래고저 노래를 즐겨 불렀다. 本來 타고난 天賦的인 才質이 있어 노래를 썩 잘불렀고, 또한 술을 잘들었으며 노는데 호협한 傑人이였다. 高宗十三年(1876)에 그는 그의 스승 朴孝寬과 더불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옛 날 詩歌를 찾어모아 李朝歷代 詩歌集(歌曲源流)를 編纂刊行하였으니, 오늘 李朝歌曲 研究에 貴重한 文獻이다. 거기에는 自身이 지은 詩調咏梅歌外에 二十六首가 실려있다. 그는 詩歌外에도 글을 즐겨썼으니 馬翁漫筆 金玉叢書라는 著書를 남기었다

在享表日無暇奉差百之禮志外差未比以

享祀隔日設忙之酒又不以一疋告別於我當為

僅向石下

學復起居萬重聞得甫老尤末枉榮寓題鳳而函
尤所云精彩之言謹付之除却多有好言論而恨不
廁於席席也道傷寒涼俗素日甚向教參同

第2節 人 物(其二)

1. 四朝를 섬긴 名人 金承霍

金承霍는 1354(共愍王 三年) ~ 1424(李朝 世宗六年) 때 사람으로 高麗朝鮮의 武臣이다. 本貫은 (順天)人이니 定州牧使惟精의 아들로서 詩文에 能하였으며 매우 어질었다.

其의 初諱는 乙寶였으나 其의 性情이 清談한 者로 王命에 禱雨輒應故, 賜名承霍라 하였고 號는 月潭이다. 1380年(우왕六年)에 紅惠王 別將에 初任, 軍器寺소윤을 거쳐 1384年(창왕 1年)에 통주위수령으로 倭狗의 侵入을 擊退하여 큰 功을 세웠다. 其后 朝鮮이 建國되자 太祖를 도와 개국공신으로 1393年(太祖二年)에 殿中鄉의 오르고 이어 의홍三軍部첨절제사, 형조전서, 동북면찰리사, 戸·曹吏曹전서, 중추원부사, 경상도병마 도절제사를 歷任하였고, 1400年(定宗二年)에 佐命功臣이 되여 鹿山君에 封해졌다. 太宗初에 참지의정부사, 工曹判書 知義禁府事를 지내고 1406年(太宗六年)에 사은사로 明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歸國하여 동북면 병마절도사겸 永興府尹, 도순문찰리사를 歷任 1409年에 北方野人이 慶源에 侵入하자 特히 王命을 받고 나아가 이들을 격퇴하여 공을 세웠다. 이듬해 참찬의정부사에 이어 1413年에 서북면 도순문찰리사겸 병마절제사, 평양부윤을 거쳐 1414年에 병조판서가 되고, 이듬해 평양군의 개봉되어 판중군 도통제부사에 올라 평양부원군의 진봉되었다. 諡號는 襄景이라 하였다.

— 襄景公 金承霍略史 —

金承霍의 原名은 乙寶요, 賜名은 承霍이다(太宗賜名) 本貫은 順天이며 號는 月潭이다. 父는 通政大夫定州牧使 麗山君 “惟情”의 第二子이며 母는 安東權氏(權洞之女)이며 配는 馬韓國夫人 平昌李氏이니 開城判尹 李叢之女이다.

其의 出身은 武臣이며 功臣號는 推忠奮義翊戴佐命功臣 四等勳으로 封爵은 平陽府院君이며 諡號는 襄景이다. 祠字는 慶北聞 慶郡加思面 鵠泉里에 있으니 月潭祠라 稱하며 芳春書院에서 祭享하니 全南 海南郡溪谷面 芳春里에서 儒林이 奉享하고 있다. 그리고 齋室은 景德齋로서 廣州郡 退村面 元堂里 墓下에 있으며 其의 墓는 初葬 廣州郡 彥州面 三成里(世宗六年)이였으나 后七十二年에 李朝 第九代 成宗大王(宣陵)卜此地故로 現墓地인 元堂里에 馬韓國夫人墓와 雙墳으로 移葬하였다. 其는 高麗 恭愍王三年(1354)三月에 小白山下에서 出生하여 李朝 世宗六年 二月 八日(甲辰年 甲寅日)卒하니 享年이 七十一才이다. 官은 刑·兵曹判書 工曹判書이고 贈, 議政府左議政하다.

그는 太宗大王時 콘가뭄에 太宗大王이 每遇時 命祈雨官, 無不應故로 (비를 날리게 한다하여) 承霍로 賜名되었다 한다. 그리고 그는 翊, (太祖, 定宗, 太宗, 世宗의) 四朝하였으며 훈노청백하여 그가 卒하매 上이 聞訃, 三日輟朝하고 賜賻

厚禮葬하였다 傳하여, 現在遺品으로 “太宗御盟錄一帳과 下賜벼루(硯石)과 王纓
一品과 粧刀一個가 現存하고 있으니 文化財의 가치가 큰것이며 月潭先生 遺詩
三首가 傳하여 지고있다.

詩一 題平壤客館(平安道節度使時)

古邑見新館, 宏規想昔年, 象山成첩장 一浦入原川, 興廢由人事, 經營待李賢, 不須鍾
鼎記, 萬口自喧傳

詩其二 題宣川東軒

光君丁酉守茲城, 遇息今來節制行, 御敵治民無寸效, 至今 愧久傳聲

詩其三 金孟庵草堂韻

八山悅若神仙境, 洞口依巖別有庄, 雲擁民峰環北戶, 溪迴盤谷近層楹, 麟基畫像天恩重
林壑風烟晚福清, 聖世逍遙真個樂, 二疏千古豈專榮

2. 書畫人 安敏學

安敏學은 廣州人이다. 察訪疊의 아들로 字는 習之(后에而 習이라고 改字하였다.)이며 號는 楓崖라고 하였으며 官은 縣監에 이르렀다. 어려서부터 종명顥異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여움을 받았고 자라매 弱冠으로 이에 爲己의 學問의 從事하여 모－든 經史百科에 貫穿치 않음이 없을뿐만 아니라 交友知己에 信義가 두터워 많은 사람들로부터 尊敬을 받았다. 또한 筆法이 精麗를極해 華
闈이 날로 높아져 當代의 名流才士들이 모두 交友를 願치 않는者 없었다 한다
일찌기 元陵參奉을 제수하였으나 不就하고 后에 드디어 禧陵參奉을 하였으
니 이르는 바에 의하면 敏學은 孝心이 깊어 일찍부터 父母의 養志養性을 다
하여 오던터인지라 元陵參奉제수함을 사양함도 肉親을 爲하여 勸勉命에 應함
이였다 한다. 牛溪成渾이 有詩曰 栗谷憂時辭舊隱 楓崖養竹齊郎이라 하였다.

(丈巖集에서)

3. 崔瓚植의 新小說

崔瓚植은(1881 ~ 1951) 號가 海東樵人 東樵등으로 경기 廣州 出身이다. 廣州
時興學校를 거쳐 한성중학에서 수학했다. 1967年 중국상해에서 발행한 小說集
說部叢書를 번안하여 新小說 分野에 첫손을 매었다. 1912年的 發表한 대표작
인 秋月色을 비롯 많은 作品을 써서 新文學 開拓에 공이쳤다. 대부분의 作品이
젊은이의 愛情問題와 關聯된 면을 써서 당시의 讀者들에 매우 人氣가 높았다.

作品으로는 秋月色을 비롯하여 雁의聲 과 金剛門 그리고 江上村과 綾羅島와
春夢이 있다. 秋月色은 1912年的 發表한 崔瓚植의 代表作으로서 당시의 新小說
중에서 가장 愛讀된 作品의 하나인 것이다. 봉건적인 유습을 타파하고 西洋文明
을 소개하여 새로운 倫理와 新教育 思想을 고취하고자 한 作品으로 갑오개정(張
이후에 부패된 관료정치에 대한 민중의 반항을 나타내어 시대의식을 반영한 점

과 그장면의 생생한 묘사감각과 愛情의 기구한 이야기가 당시의 讀者들에게 환영받는 요소가 되었다. 作品의 무대를 한국, 일본, 영국, 중국등과 廣範圍한 지역으로 잡고 男女간의 사랑을 소재로 삼각관계를 그리고 있으며, 사랑에 대한 기성도덕과 새로운 時代 의식에 따르는 모럴을 대조시킨 作品인 것이다. 또 “금강문”은 1914년에 쓴것으로 인과응보를 주제로한 作品이며 作品 가운데 금강산 풍경의 소상한 묘사는 일종의 기행문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雁의 聲”은 秋月色과 같은해인 1912년에 발표한 것으로 지식풍 男女관계를 소재로하여 자유연애 및 자유결혼을 주장하는 한편, 기성사회의 권위인 계급제도 대신의 새로운 지식과 돈의 힘을 새시대의 風을 제시한 작품이다. 이소설 역시 秋月色과 마찬가지로 스토리전개 방식에 있어 우열의 연속으로 되어있으며 兩班과 천인이 결합함으로서 평등사상을 부르짖는 다던지 법학공부하여 판사가 된다는 내용은 당시의 개화사상을 고취하는 소설의 공통된 일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綾羅島는 짧은 男女간의 愛情問題를 소재로한 작품으로 다른 新小說作品에 비해 이야기의 줄거리를 多元的으로 펼쳐나가고 있으며 폭넓게 구성한 점이 특이한 것이다.

그리고 “海岸”은 1914년 잡지 우리의 가정의 연재된 작품으로 新舊時代사의 상반된 倫理觀과 心理的 갈등을 주제로한 現代小說의 接近하는 구성을 보여주는 小說이다.

4. 三一萬歲(己未年)의 李鍾勳

李鍾勳(1856 ~ 1931)(哲宗七年) ~ 獨立運動家의 號는 正菴이니 경기 廣州出身이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英特함이 있더니 자라매 25歳때 東學에 入教하여 修道하던中 1894年 東學革命이 일어나자 선두에서 活躍하다가 한때 日本에 亡命하였고 其后 孫秉熙, 權東鎮等과 天道教 改篇에 힘써 道師가 되었다. 其後 三一運動(己未年 三月一日) 때에는 三十三人の 한사람으로 參加하여 烈烈히 救國運動을 벌이던中 倭警에게 被檢되어 二年刑을 宣告받았다. 其後 孫秉熙先生이 作故한後 1922年 七月 天道教人을 中心으로 組織된 高麗革命 委員會의 顧問의 追載되어 抗日運動을 계속하다가 滿州에 전너가 病死했다. 1962年 大韓民國 建國功勞勳章 복장이 授與되었다. (三一運動 秘史에서)

5. 近代의 開拓者 翁吉瀠

翁吉瀠은 廣州의 脈을 이은近代의 뛰어난 人物이다. 其의 先鄉이 廣州山谷일뿐 아니라 廣州에 代이어 묻힌 先塋의 脈을 이은 廣州人이다. 其는 이나라 開化期의 落後된 祖國의 跗은 여명을 為하여 伸士遊覽團의 한사람으로 韓國最初의 유학생으로 西洋文物을 直接 돌아보고와서 其때까지만 하여도 鎮國期로서 西域

實情에 매우 어두웠는 祖國의 앞날을 우려하여 世界文明의 눈돌릴것을 극력 主張하였고 西洋의 新進文明을 수입하여 開化하여야 할것을 극력 촉구하여 근대문명의 開眼의 기폭이 되었다. 이러하여 유람도중 보고 듣고 느낀바를 西遊見聞錄이란 冊으로 엮어 近代文明에 눈뜨게 하였다. 其가 이룩한 功獻은 너무 도 크거니와 其有名한 西遊見聞錄이 이땅 廣州에서 씨뿌린 땅이며 胎動한 땅이다. 其는 廣州山川의 精氣받은 태어났고 其가 廣州 先瑩下에서 잔뼈를 굳히며 자라왔다. 그리고 其는 廣州땅을 오가며 祖國의 앞날을 걱정하였고, 西遊見聞을 이곳 廣州에서 집필하였다.

이 名著를 남긴 廣州고을이야 말로 감격이 크거니와 廣州고을에 크나큰 사랑이 아닐 수 없다.

韓國 最初의 美國 유학생으로서 『西遊見聞』 등 저서를 남긴 開化期 선각자 矩堂 俞吉濬은 一八五六年 一〇月 二四日 서울 제동에서 嘉善大夫직을 지낸 俞鎮壽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矩堂은 萬兼, 億兼, 兆兼, 京兼등 四형제를 두었으나 兆兼, 京兼 형제는 모두 대가 끓기고 현재 萬兼씨의 부인 尹淑卿씨(八一·梨花學堂卒業)가 장남집(서울 성동구 화왕십리동 九六一의 八九)에 살고 있다. 萬兼씨는 모두 五남매를 두었으나 장남 炳德씨와 장녀 炳姪씨만이 생존해 있다. 炳德씨는 京畿中, 서울大文理大 정치학과를 거쳐 一九七一年까지 관직(감사원 심의실장 역임)에 머물다가 지금은 퇴직하여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는 부인 洪承姬씨(四九·前大韓辦協會長洪承萬씨의 누이동생)와의 사이에 碩在(二八·東國大 물리학과卒), 碩姪(二十五·外大 영어학과卒) 등 五남매를 두었다. 矩堂의 둘째아들 億兼씨는 日本 京都三高, 東京帝大를 卒業하고 귀국후 延專 교수생활을 하다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서 趙炳玉, 申興雨등과 수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교수직에서도 쫓겨난다. 그는 해방후 延禧大 초대총장, 軍政 문교부장등을 역임하다 작고했다.

死六臣의 한사람 俞應孚의 遠孫인 矩堂의 집안은 그리 넉넉하지는 못했으나, 양반가제에 속하는 학문을 중상하는 가풍을 견지, 어릴때는 집에서 부친에게 한문을 배웠다.

一六, 一七세 소년시절 그는 당시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온 선구적 사상가 朴珪壽(유명한 실학사상가 朴趾源의 손자)의 집에 드나들면서 서양의 새문물, 새지식에 접한다. 그후 一八八一年 그는 정부에서 선진문물을 배우고자 渡日하는 紳士遊覽團의 일원이 되는데 朝士 魚尤中을 수행하여 尹致昊등과 함께 財政制度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는다. 矩堂은 三개월 코오스의 시찰을 마친후 일본에 계속 남아 공부할것을 자원, 魚尤中등 朝士들의 허락을 받아 후꾸자와 유끼지(福澤諭吉)가 경영하는 慶應義塾에 입학했다.

矩堂은 당시 일본의 개화선각자로 많은 저술과 教育事業에 힘써 온 후꾸자

와의 집에 기거하면서 개화무드에 흠뻑 젖어들게 된다. 일본에 체류한지 一년 쯤 지나 본국에서는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壬午軍亂이 일어나 그수습사절로 朴泳孝를 正使로 한 金玉均, 徐光範, 閔泳翊등이 파견되는데 이들은 귀국할때 爰吉濬에게 같이 돌아가 개화사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그리하여 矩堂은 후꾸자와가 추천한 일본인 신문편집 기술자 몇 사람을 데리고 귀국했다.

귀국한 矩堂은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主事로 임명되어 외교사무를 담당하는데 당시 漢城府尹으로 취임한 朴泳孝는 漢城府안에 新聞局을 두어 新聞을 발간할 생각으로 爰吉濬에게 준비작업도 맡긴다. 그러나 이작업은 三개월뒤 보수파의 반발로 朴泳孝가 물러나 일단 중단된다.

그후 그는 몇 달동안 집에서 은거하다 一八八三年五月 韓美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됨에 따라 친선사절로 도미하는 閔泳翊 전권대사를 수행하는 행운을 얻게 된다. 일행은 백악관에 들려 대통령에게 國書를 제정하고 四〇여일간 미국 각지를 시찰한후 귀국길에 오르는데 閔泳翊의 알선으로 국비장학생으로 남아 한국의 첫 일본유학생의 이력에다 첫 미국유학생이라는 영예를 갖게된다.

그동안 矩堂은 TU바디대학 박물관장을 맡고 있던 당대 미국의 저명한 모스박사밑에서 영어와 과학에 관한 개인교수도 받으며 모스의 소개를 받아 명문사립고교 다마학원에 입학하려고 고국에서 甲申政變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一년 三개월만에 귀국한다. 이처럼 예정을 앞당기면서도 歐美文物에의 見聞意慾은 그로 하여금 유럽 각국을 거쳐 귀국하도록 하는데 그가 돌아올때 가지고 온 커다란 나무궤짝 두개가 아직도 그의 손자(병덕씨) 집에 남아있다.

一八八五年一二月 귀국하자 그는 보수정권에 의해 체포되고, 그 이후 무죄임이 밝혀지나, 다시 지금의 서울 삼청공원 못미쳐 백록등 翠雲亭에 연금되는데 그는 이곳에서 二年간에 걸친 미국과 유럽에서의 견문을 모아 『西遊見聞』 이란 명저를 남긴다.

矩堂의 친필들이 또박또박 살아 움직이듯 눈에 익은 六百여장의 이 책의 원본은 병덕씨 집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다. 모두 二〇편으로 엮어진 이 책은 지구와 세계 및 각국의 人種, 物產, 도시와 민주정치, 제도, 교육, 사회, 경제등 당대 歐美的 實相들이 고루 떠담겨 있어 근대사 연구에 더없는 사료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는 一八九二年, 七年만의 연금생활에서 풀려나고 二年후 金弘集의 甲午更內閣에 内部協辦으로 들어가 이듬해 미국에서 돌아온 徐載弼이 『독립신문』을 간행하려 하자 五천원의 국고보상금을 내도록 하는등 개화정책에 몰두한다. 그러다가 俄館播遷을 맞아 一一년간 일본에서 망명생활을 하는데 이 동안 그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는 청년장교 一六명과 접촉, 본국의 보수정권을 무너뜨리고 혁신정권을 세우려 시도하다 탄

로되어 一九〇二년 동경 경시청에 소환되어 심문을 받아 오가사와라(小笠原島)로 귀향살이를 간다.

一九〇七年 八월 망명생활에서 귀국하자 그는 國民經濟會를 조직하고 호남철도회사를 세우는등 민족 자주경제를 이룩하는데 관심을 보이며, 漢城府民會와 흥사단을 조직하여 국민계몽에도 힘쓴다. 그동안 망명생활중에 집필한 『大韓文典』을 간행하고 十여종의 각종 저서를 내놓는다.

一九一〇년의 韓日合併을 앞두고서는 親日團體인 一進會성토 등에 앞장서며 褙負商 단체가 一進會의 한일합방론에 찬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한 나머지 그 사무소에 달려가 간부를 구타하기도 하며, 합방후에도 日帝가 주는 남작의 작위를 거부해 버린다.

矩堂은 만년에 기독교에 귀의하여 한강전너 노량진에 은거하다 1914년 九월 三〇일 五九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치고 先塋이 있는 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덕풍리에 묻혔다.

明月松寒屋
小秀才國士也古筠事敗空飛
每念到不孩兒些今其既孤
矩堂先生俞吉清



俞吉清의 筆跡

6. 近代의 政治家 海公 申翼熙

略歷

1892. 6. 9 京畿道 廣州郡 草月面 서하리 67 번지에서 申檀의 막내아들로 태어남.
- 1908 漢城官立 외국어학교 졸업.
- 1910 와세다大學 政經學部에 입학. 재학시 在日統一團體學友會를 결성하여 安在鴻, 文一平과 잡지『學之光』을 발행.
- 1917 普成法律商業學校에서 比較, 憲法·財政學등을 강의.
- 1919 上海로 망명, 臨政 議政院에서 외무분과위원장에 피선
- 1922 臨政 議政院 副議長, 國務院 秘書長을 역임.
- 1945 臨政 내무총장으로 환국.
- 1946 大韓獨立促成國民會를 결성하여 副會長이 됨. 國民大學을 설립하여 그학장이 되며 自由新聞 사장이 됨.
- 1947 立法議院 의장으로 당선됨. 大韓國民黨 대표최고위원이 됨.
- 1948 국회의장에 당선됨.
- 1950 民主國民黨 위원장에 피선
1956. 5. 5 民主黨 대통령후보로 호남지방을 유세중 뇌일혈로 급서.

一九五六年五月三日三〇萬명이 모여 야당불을 고조시킨 한강 백사장 유세에서 民主黨 대통령후보 申翼熙는 이처럼 民主主義를 깨우치고 民權수호의 경륜을 활짝 펼친다.

上海臨時政府 내무부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등을 역임한 巨木 정치인 海公 申翼熙는 一八九二年六月九日 京畿道 廣州郡 草月面 서하리 六七번지에서 판서를 지낸 申檀의 다섯아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임진왜란때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순국한 申砬장군이 그의 一〇代祖이기도하다.

「아버님께서 태어나신 집은 六·二五事變전부터 다 없어졌고 지금은 집터만 남아 있습니다. 물이 맑고 깊은 개천가인데 廣州郡內에서도 경치 좋은 곳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一三살때 고향을 떠나셨으니 근 五〇年후인 해방후에야 다시 고향을 둘러보시고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시면서 고향 곳곳을 다시 살펴 보시게 되는 것이지요.」(아들 河均씨의 말) 海公은 남매를 남겼다. 딸 정완씨(六〇)는 광주학생운동때 중국으로 망명한 金在浩(六三·토건업)와 결혼, 서울 서대문구 흥제동 안산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망명 시절 上海 光華大(商科)를 졸업한 아들

河均씨는 아버지의 대를이어 고향에서 三대, 五대, 六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활동후 광복회 부회장직도 역임했으나 최근 작고했다. 海公은 一〇세때 「四書三經」에 「三國誌」「水許誌」등을 독파하고 一二세때 보통학교에 입학한다. 이때 그는 아버지를 잊어 三年상을 치르고 이듬해 참관 李命財의 三女 李承姬와 결혼한다.

海公 스스로 어린시절의 성품을 그의 自敍傳에 이렇게 그리고 있다.

나보다 큰아이와 싸워서도 기어이 항복을 받고야 마는 남에게 지지않는 勝癖이 있었고, 또 상대편이 조롱을 하거나 놀릴때에는 격분하면 방망이나 도끼나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때리는 버릇이 있어서 동무들이 무서워했다.

(「나의 自敍傳」 申翼熙)

一九〇八年 漢城관립 외국어학교를 졸업하고 一九세에 이르러 日本 와세다大學 정치경제학부에 입학한다. 이때 그는 在日統一團體學友會를 결성, 安在鴻, 鄭世鳳, 文一平등과 잡지 「學之光」을 발행한다. 당시 대학동창으로 崔斗善, 玄相允, 張德秀등과 사귀며 국내에서의 축구단 조직을 통한 抗日 청년단체를 만들어 尹顯振, 尹弘燮, 李裕弼등 동지를 규합하기도 한다.

一九一三年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한 海公은 慶州에 東明강습소를 열어 개화지식을 보급하며 中東學校에서 교편을 잡기도 하고, 一九一七年 부터는 普成法律商業學校에서 比較憲法, 國際公法, 財政學등을 강의한다.

그러다가 一九一八年 六月 미국 월슨대통령의 민족자결 원칙이 발표되면서부터 海公은 본격적으로 抗日運動에 나선다. 이 무렵 崔麟, 宋鎮禹, 崔南善등과 비밀회담을 통해 독립운동의 방법을 토의하여 이듬해 三·一운동때 海公은 李昇薰, 尹致昊등과 연락임무를 맡으며 해외독립 운동원과의 연락임무 때문에 三三인 민족대표자 서명에서도 빠진다. 그는 이때 上海에서 新韓青年黨을 결성하고, 국내에 참입한 張德秀와 선을 대는 한편, 해외에 나가있는 文昌範, 洪範圖등과의 연락을 위해 중국으로 떠난다. 얼마후 孫秉熙를 데리고 나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하면서 天道教堂 전축비로 모은 돈을 독립군 군자금으로 쓰기위한 임무를 떠고 국내에 참입하나. 이미 체포된 후여서 이해 三月十九일 상해로 망명한다.

上海에서의 海公은 프랑스 租界인 寶昌路 三二九에 임시사무소를 꾸며 臨政수립에의 사전 활동을 벌이며 이해(一九一九年) 四월 一〇일 上海 法(독일)租界 全神父路에서 열린 第一會 임시議政院 회의에서 임시 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된다. 또한 내무분과위원과 외무분과위원장을 맡는 동시에 李始榮, 趙素昂 등과 임시憲章 기초위원이 되어 憲章 一〇개조를 제정하며, 一九二二년 職制 변경에

따라 議政院 副議長에 國務院 秘書長을 歷任한다.

그후 臨政에서의 海公은 외무총장代理, 文教部長을 역임, 一九二三年 一월 一八일 金相玉 義士의 의거를 지휘하며, 蔣介石총통등 中國 정부 요인들을 만나 독립운동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八. 一五해방을 맞은 海公은 一九四五년 一二월 一일 臨政 내무총장의 자격으로 二六年만에 환국, 全北 옥구비행장에 내린다. 귀국 이듬해 大韓獨立促成國民會를 결성, 副會長이 되며, 書耕夜讀의 教育機關으로 國民大學을 설립하여 그 학장이 되며 自由新聞 사장일도 맡는다. 그후 美軍政下의 南朝鮮過渡立法議院 서울 民選代議員으로 당선, 一九四七年 立法위원 의장으로 당선된다. 뒤이어 大韓民國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그의 정치활동은 본격화된다. 一九四八年 制憲國會 아래 一九五〇년, 一九五五年 선거에서 고향인 廣州에서 출마, 三選의 영예를 누리며 大統領으로 선출된 李承晚 초대 국회의장의 뒤를 이어 名 國會議長으로 각광 받는다.

一九四七年 大韓國民黨을 결성, 대표최고 위원이 되며. 一九五〇년 韓國民主黨과 合黨하여 民主國民黨으로 개편하고 그 위원장에 피선된다.

海公은 一九五三年 英여왕 엘리자베스二세 대관식에 한국대표로 참석하고 친선사절로 우방 각국을 순방하여, 二년후 재야세력을 규합, 民主黨을 창당. 그 대표최고위원에 취임하고 이듬해(一九五六년) 民主黨 大統領 후보로 호남지방을 유세중 五월 五일 뇌일혈로 급서했다

第二章 現場의 발자취

第1節 百濟 初中期 旧都에 대한 史的考察

백제 초중기구도(百濟 初中期舊都)라 함은 온조(溫祚)가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에 도읍한 때로부터 문주왕(文周王)의 웅진(熊津一公州)에 옮기기 까지 를 이름이다. 백제는 역대 三十一왕 六백七십八年에 신라(新羅)에게 멸한바되어 온조왕으로 부터 문주왕의 전대 개로왕(蓋齒王) 말년까지 二십一왕 역년 '四백九십三年간은 백제의 초기중기(初期中期)라 할 수 있다. 백제의 초기중기 구도(舊都)에 대하여 고대사기를 살펴보면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온조(溫祚)가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산(負兒山)에 올라가서 도읍터를 바라보다가 비류(沸流=온조의 형이니 그때에 온조와 비류가 함께 도망하여 왔던 것이다)는 해변에 살기를 원하니 신하 열사람(그때에 오간, 마여등 열사람이 온조형제를 따라 왔던 것이다)이 간하야 가로되 이 하남(河南)의 땅이 북에는 한수(漢水)가 있고, 東에는 높은 산이 있고, 남에는 기름진 넓은 들이 있고, 서에는 큰 바다가 막혔으니 여기에 도읍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합니까 하니, 비류는 듣지않고 따라온 백성을 나누어 미추홀(彌鄒忽=지금 仁川 文鶴山)에 가서 거접하고 온조는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에 도읍하였다 한다(遂至漢山登負兒山望可居之地沸流欲居於海賚十臣諫曰惟比河南之地北帶漢水東據高岳南臨沃澤西阻大海作都於此不亦宜乎沸流不聽分民歸彌鄒忽居之溫祚作都於河南慰禮城)

백제본기(百濟本記)에는 온조왕 十三年(夏五月)에 왕이 신하에게 이르되 동에는 낙랑(樂浪)이 있고 북에는 말갈(靺鞨)이 있어 우리나라를 침범하여 편안한 날이 없고 또 요성(妖聖=악한 별이라는 뜻이니 옛날에 하늘의 별을 보고 사람의 질흉을 판단했다)이 여러차례 보이고 인군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심으로 마음이 불안하니 장차 도읍을 옮겨야 하겠다. 어제날에 나아가 보니 한수남방(漢水南方)이 토지가 비옥하니 마땅히 저곳(한수의 남방을 이름)에 도읍하리라 하고 추칠월(秋七月)에 한산(漢山) 아래에 목책(木柵)을 세우고 위례성 백성을 옮기게 하였다 하고(溫祚王十三年夏五月 王謂臣下曰東有樂浪北有靺鞨朕疆城靡有寧日況今妖星屢現國母棄養勢勢不目安必將遷國矛昨出巡觀漢水之南土地膏腴宜都於彼以國久安之計秋七月立柵於漢山下移慰禮城民戶) 또 온조왕 십사년(溫祚王十四年)에 도읍을 옮기었다(遷都)하였다.

주(註) —한나라 네골(漢四郡) 속에 임둔(臨屯)이 낙랑과 합병한 고로 온조왕 말에 동에 낙랑이 있다함은 정당하다. 말갈은 흑수말갈(黑水靺鞨)이나 속말말갈(粟末靺鞨)이 모두 수천리 북방에 있거늘 북에 말갈이 있다함은 무슨 까닭

인가? 생각컨데 그때에 반도(半島) 안에는 한족(漢族)을 대항하는 환족(桓族)이 각처에 산재(散在)하여 대소집단(大小集團)을 조직하고 이민족(異民族)인 한족(漢族)과 끊임없이 항쟁(抗爭)하였던 것은 옛날 사기에 옥저(沃沮)와 낙랑(樂浪)의 중간에 있는 예(穢)와 맥(貊)이 한나라 네 골(漢四郡)의 쇠약(衰弱)함을 틈타서 마자수(馬訾水) 상류와 태백산 동남(太白山東南)을 점령하였다하여, 그 밖에도 개마(蓋馬), 구다(句荼), 황룡(黃龍) 등 여러 곳에 많은 부락이 있었다는 기록(記錄)을 미루어 보면 그때 낙랑의 주위에는 크고 작은 환족(桓族)의 집단(集團)들이 서로 연락하고 협조하여 공동으로 한족(漢族)에 대항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때에 한산(漢山)이라는 곳은 낙랑의 도읍 평양(平壤)과 마한(馬韓)의 도읍(都邑) 금마군(金馬郡=全羅北道 益山郡)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환족(桓族)의 반항세력(反抗勢力)을 집결(集結)하는데 가장 적당한 곳인고로 이곳을 근거지(根據地)로 삼은 환족들이 같은 환족인 말갈과 서로 연락하여 낙랑에 반항하고 말갈은 당시 환족중에 가장 국세가 강성한 고로 낙랑에서 한산(漢山) 근처에 있는 환족(桓族)을 말갈(靺鞨)이라 부르고 백제에서도 역시 그것을 따라 말갈이라 한것이 아닌가 한다.

온조가 특별히 한산(漢山) 지방을 선택한 것은 이 지방이 비록 마한(馬韓)의 영토이기는 하나 정치적으로 아직 마한의 완전한 주권(馬韓의 完全한 主權)이 행사(行使)되지 못하고 혼란상태(混亂狀態)에 빠져있는 것을 이용한 것이며, 전국후(建國後) 마한(馬韓)을 섭정 마한으로부터 근처 수백리 지방의 활양(割讓)을 받은 것은(後文參照) 한편 마한이 북방의 강대한 낙랑의 세력을 두려워 하여 온조로 하여금 속국(屬國)을 삼아 중간원충지대(中間緩衝地帶)를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온조가 남방국경에는 일이 없으나 북방에는 낙랑과의 사이에 남아 있는 환족(桓族)들이 세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주 백제를 침범(侵犯)하는 것을 근심한 것이니 백제사 초기(百濟史初期)에 말갈과 충돌이 자주 있었던 것은 이 까닭이다.

백제사(百濟史)에는 근초고왕 二十六년 겨울(近肖古王 二十六年冬)에 왕이 태자(太子)로 더불어 군사 삼만(三萬)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평양성(高句麗 平壤城)을 치니 고구려왕 사유(斯由)가 맞서 싸우다가 화살을 맞어 죽는지라 왕이 군사를 끌고 돌아와 한산(漢山)에 도읍을 옮겼다고(近肖古王二十六年冬 王與太子率精兵三萬句麗平壤城魔王欺由力戰抗之中流矢死王 軍還移都漢山)

또 문주왕 원년(文周王 元年)에 웅진(熊津=只今 公州)에 도읍을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斯由는 高句麗 故國原王의 이름이다)

이상 세 가지가 백제 초중기구도(初中期舊都)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니 처음에는 위례성(慰禮城) 다음에는 한산아래(漢山下) 그 다음이 한산(漢山)의 순서이다. 그러므로 백제 초중기 구도를 알려면 하남(河南)이 어디이며 위례성이 어디인가? 한산(漢山)은 어느 한산이며 한산 아래라 함은 어느 지방을 가르킴인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하남위례 성(河南慰禮城)

첫째 하남(河南)과 위례 성(慰禮城)이 어디인가를 알려면 그때 온조가 이르렀다는 한산(漢山)이 어느 지방이며 하남의 도읍터를 바라보았다는 부아산(負兒山)이 이 어느 산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한산(漢山)은 곧 이름에도 한산이 있고 산(山) 이름에도 한산이 있다. 광주(廣州)의 옛날 이름이 한산(漢山)이다. 그러나 그것은 백제가 웅진으로 쫓겨간 후 고구려가 점령하여 한산군(漢山郡)이라 하고 그후에 신라(新羅)가 취하여 한산주(漢山州)를 둔 것이요, 그 전에는 참고할 기록이 없으며, 또 다른 지방에 한산이라는 곳 이름이 없으므로 삼국사기(三國史記)의 한산이라는 것은 곳 이름의 한산이 아니라 산이름의 한산으로 해석(解釋)하여야 옳을 것이다. 산 이름에는 남한산(南漢山)도 한산이요, 북한산(北漢山)도 한산이다.

2. 부아산(負兒山)

삼국사기에 온조가 한산에 이르러 부아산(負兒山)에 올라갔다는 것을 보면 부아산은 한산의 산맥(山脈)이거나 근처에 있는 산임을 짐작할 수 있으니 그러면 남북한산중(南北漢山中)에 부아산이 있고 없는것을 떠나서 그때에 온조가 이르렀다는 한산이 어느 한산인가를 찾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산산맥에는 주봉삼각산(主峰三角山)의 별명이 부아산(負兒山)이다. 그러나 남한산 산맥과 근처에는 부아산이라는 산이 없으니 그때에 온조가 이르렀다는 한산은 북한산으로 추정(推定)해야 옳은 것이다. 다음에 연구할 것은 그때에 신하 열 사람이 부아산에 올라가서 하남(河南)의 땅이 북에는 한수(漢水)가 있고 동에는 높은 산이 있고, 남에는 기름진 들이 있고, 서에는 큰바다가 막혔다고한 하남이라는 땅이 어느 곳이냐 하는 것이다.

3. 하남(河南) 서광주평야

삼각산(三角山) 위(上)에서 바라보면 서편에는 인천(仁川) 바다가 보이니 비

류(沸流)가 해변(海邊)이 좋다하여 인천으로 간것은 이 까닭이요, 남편으로 한강(漢江) 건너 남방(南方) 지역(地域)에 광주군 동부면, 구천면, 서부면, 중대면, 대왕면, 연주면(廣州郡 東部面, 九川面, 西部面, 中垈面, 大旺面, 彥州面)을 포함한 서광주평야(西廣州平野)가 있고 이 서광주평야는 한강이 흐르고, 동에는 검단산(黔丹山)과 남한산(南漢山)이 벌려 있고, 남에는 탄천(炭川), 양재천(良才川)을 중심으로 하여, 중대면, 대왕면, 연주면의 평야가 열리고 서에는 한강하류(漢江下流)를 통하여 인천 바다에 이르니 부아산의 위에서 하남의 도읍터를 바라보았다는 하남이라는 땅은 서광주평야(西廣州平野)를 바라보았다 할 것이요, 그러면 위례성(慰禮城)은 서광주평야속에 어느 구석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서울서 남쪽으로十五里쯤 가면 한강(漢江)이 있고 한강을 건너면 그곳이 서광주평야이다.

주(註)－삼국유사(三國遺事)에 백제 제十五대 침류왕(枕流王) 원년(元年)에 총국 동진(東晉)이라는 나라로 부터 마라난타(摩羅難陀)라는 종이 건너온 고로 궁중(宮中)에 맞어드려 공경하여 대접하고 이듬해에 새도읍(新都) 한산주(漢山州)에 절(寺)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십삼대 근초고왕(第十三代 近肖古王)이 한산(漢山)에 도읍을 옮긴 이후의 일이고, 온조왕때에는 한산주라는 특별한 곳 이름이 없었다. 또 백제사(百濟史)에 제사대(四代) 개루왕(蓋婁王) 五년에 북한산성(北漢山城)을 쌓았다는 기록을 보면 남한산과 북한산이 역사상에 구별하여 드러나기는 개루왕(蓋婁王) 때부터이다 온조가 부아산에 올라갈때는 서울과 광주가 다같이 마한(馬韓)의 영토로 한덩어리 지방이요, 한강(漢江)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영접하고 고로 한강양편을 산(山)을 다같이 한산(漢山)이라 부르고 따라서 그 지방을 다같이 한산지방이라 한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충청남도(忠淸南道) 직산(稷山)을 위례성(慰禮城)이라 하여 직산부근 지방을 하남(河南)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직산의 고호(古號)를 위례성(慰禮城)이라 한다. 그러나 직산 지방에는 온조가 올라가서 도읍터를 바라보았다고 할만한 부아산(負兒山)이 없다. 무리(無理)하게 말하자면 수원(水原) 평택간(平澤間)에 석성산맥(石城山脈)에 부아산이라는 산이 있어 그 산 위에서 온조가 하남(河南)이라고 할만한 하(河)가 없다. 직산 북방에 안성천(安城川)이 있으나 그것을 하(河)라 할 수는 없다. 직산은 석성산맥의 부아산에서는 근(近) 백리(百里)나 떨어져 있으니 근 백리밖에서 바라보고 복이 어떠니 동남서(東南西)가 어떻다고 그렇게 소상(昭詳)하게 사표(四標)를 지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 수원 평택 사이의 부아산은 한산(漢山)의 낙액(落脈)이나 근처

도 아니요, 한산이라는 산도 없고 골도 없다. 또 직산에는 북에 한수(漢水)가 있다고 할 만한 한수(漢水)가 없다. 수백리(數百里) 북방(北方)에 있는 한강(漢江)을 가르켜 북에 한수(漢水)가 있다고 하였을리가 없다.

혹은 백제사(百濟史)에 개로왕(蓋幽王)二十二년에 강(江)을 따라 둑을 쌓아(沿江築堰) 사성(蛇城)의 동으로 부터 송산(崇山)의 북에 이르렀다하여 백제(百濟) 도성(都城) 근처(近處)에 사성(蛇城)이라는 성이 있고, 또 직산의 고호(古號)가 사산(蛇山)이나 사성(蛇城)이나 다같이 뱀재(同一)한 지방(地方)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직산은 위에 말한 강(江)을 따라 둑을 쌓았다는 만한 강(江)이 없으니 문자(文字)와 말의 음이(音) 우연히 같은것 뿐을 이유로 하여 사성(蛇城)이 직산에 있다할 수 없고 직산을 위례성이라고 단정(斷定) 할 수 없는 것이다

주(註) — 광주군(廣州郡) 동부면(東部面) 미사촌(渼沙村) 근처에 속칭(俗稱) 뱀개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 구능(丘陵)자락이 판연하여 옛날에 토성(土城)을 쌓았던 것이 분명하다. 뱀개는 뱀개의 와전(訛傳)이 아닌가 생각되고 뱀개는 한자(漢字)로 사포(蛇浦)라 하며 사포(蛇浦)에 성(城)을 쌓은 고로 사성(蛇城)이 아닌가 생각된다. 백제의 국도(國都)는 위례성으로부터 한산(漢山) 아래(廣州) 고골에 확대하고 다시 한산(漢山)에 옮기었으니(後文參照) 고골이 국도(國都)로 있을때에 근처 한강(漢江) 연안(沿岸)에 사성(蛇城)을 쌓아 국도를 방어하였던 것을 개로왕(蓋幽王) 때에 고구려와 국경이 근접한 것을 염려하여 사성의 동편으로부터 송산(崇山=높은 산)이라는 뜻이니 금단산(黔丹山)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한다)의 북편에 이르기까지 강안(江岸)을 따라 다시 제방(堰)을 더 쌓은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직산은 어느 조건에 빛추어 보든지 위례성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九川面, 中垈面, 彦州面은 只今은 서울로 編入, 大旺面은 一部 서울, 一部 城南市로 行政改編되었음)

4. 이성산(二聖山)

이상과 같이 직산도 서울도 모두 위례성이 아니라면 참말 위례성은 어느 곳이라고 할까? 신단실기(神檀實記)에는 광주 이성산(二聖山)을 위례성이라 하였다. 이성산은 광주군(廣州郡) 서부면(西部面) 초일리(草一里)에 있으니 산복(山腹)에 돌로 쌓은 성을 둘러 쌓은 혼적이 역역이 남아 있고 주춧돌과 깨여진 기와장이 쌓여 있고, 무수한 고기(古器)의 파편(破片)이 땅속에서 발견되니 옛날에 건물이 이곳에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전설(傳說)에 백제 왕자(王子) 두 사람이 이 산(山)에 거주하였다 하여 이성산(二

聖山)이라 한다하나 분명한 증거가 없고 나의 추측에는 백제 왕자 두 사람이나 아니라 비류(沸流)와 온조(溫祚) 두 사람을 가르킨것이 아닌가 한다 위례성에는 온조만 있고 비류는 미추흘(彌鄒忽)로 간 것이다, 그러나 고사(古史)에 비류가 미추흘로 부터 위례성에 와서 성지(城地)의 견고함을 보고 부끄러워 병들어 죽은 후에 미추흘에 있던 비류의 부하가 모두 위례성에 돌아왔다는 기록을 보면 그때 위례성에는 온조 비류의 부하들이 함께 거주한 것이 분명하고, 또 온조와 비류는 백제의 왕자는 아니나 다같이 백제 전국(建國) 계통(系統)의 인물이므로 후세에 백제의 왕자 두 사람이라 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성산(二聖山)이라 한것이 아닌가 한다. 이성산이라 부르게 된것은 옛날에 위례성이 있던 산이라 하여 위례성산이라 부르던 것이 점차 외전(訛傳)하야 후세에 이성산이라 부르고, 이것을 한자로 二聖山이라 번역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이성산은 한강 남방의 서광주평야 속에 있으니 하남[(河南에 틀림없고 고적으로나 지형으로나 직신과 서울은 비교도 안될만치 하남(河南) 위례성(慰禮城)]으로 판단하기에 적당한 곳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성산이 위례성이라는 데에 대하여 반대설이 적지 않다 첫째 이성산은 산정(山頂)의 주위가 불과 사오리(四五里)밖에 되지 아니하니 그렇게 좁은 곳에 도읍을 정할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조왕이 위례성에 도읍할때는 겨우 오간(烏干), 마여(馬黎) 등 열사람의 신하와 그밖에 약간명의 따라온 백성을 뿐임으로 처음에는 나라 이름을 십제(十濟)라 하였으니 그만큼 간단한 살림살이이다. 또 지금은 국도(國都)라면 규모가 크고 호화로운 것으로 연상되나, 그러나 십제가 위례성에 도읍한 것은 그렇게 호화로운 것이 아니요, 망명객(亡命客) 집단(集團)들이 일시 거접한 곳이라 생각한다면 이성산의 규모가 적다하여 국도를 부인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후에 비류가 사망하고, 그의 부하가 다시 온조에게 와서 국세가 팽창함에 불과 十四年 만에 다시 한산(漢山) 아래(下)에 목책(木柵)을 세우고 위례성에 있는 백성을 옮겼다는 고대 기록을 보면 당초에 이성산을 좁은 곳이 나마 일시 거접처로 정하고 후에 국세가 팽창함에 따라서 다시 도읍을 확장한 것이라 하겠다.

둘째 반대이유는 백제(百濟) 본기(本記)에 온조왕이 동에 낙랑과 북에 말갈에 대한 외적(外敵)을 염려하고 요성(妖星)이 여러차례 보이고 왕모(王母)의 별세한 것을 근심하여 한산 아래에 책(柵)을 세우고 위례성 백성을 옮기었다 하니, 만일 위례성을 이성산이라 하고 한산 아래를 광주 고을이라 하면 이성산과 고골은 지척 지지라 외적을 염려하여 도읍을 옮긴다

하면서 어찌 지척 지지로 옮길 이유가 있으랴! 그런데 고골이 한산 아래라는 것은 거의다 학자간에 정설(定說)이니 그렇다면 이성산은 위례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는 깊이 연구 할 필요가 있으니 나는 온조왕이 도읍을 옮기는 이유는 외적의 염려 보다도 차라리 요성이 여러차례 보이고 왕모가 별세한 까닭이라 생각한다. 만일 온조왕이 참으로 외적을 염려하여 도읍을 옮긴다 하면, 설령 위례성이 이성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남(河南) 지방인 것은 사기에 자재(自在)하고, 또 한산 아래라는 곳이 한수의 남방에 있는 것은 백제 본기에 온조왕이 한수의 남방이 토지가 비옥하니 마땅히 도읍하리라 하고, 추칠월(秋七月)에 한산 아래에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 백성을 옮겼다는 기록을 보아도 알 수 있으니, 위례성이나 한산 아래가 다같이 하남(河南) 지방이라 국방상(國防上) 그렇게 큰 차이(差異)가 없거늘, 구태여 도읍을 옮길 필요가 무엇인가?

그러면 온조왕이 옮긴 동기가 외적을 근심하는 데에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사가(私家)에서나 공가(公家)에서나 집안에 재앙이 있으면 주택(住宅)을 이사하고 가옥의 방위를 고치는 것은 예로부터 전하는 우리나라의 미신(迷信)이다. 그때 요성이 여러차례 보이고 왕모가 사망하여 국가에 재변이 계속함으로 그것을 고려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그때까지 살고 있는 위례성 근처의 한수(漢水) 남방이 가장 토지가 비옥하여 다른 곳에 그만한 곳이 없는 고로 구태여 다른 지방으로 갈것이 아니라 위례성에서 가까운 한산(漢山) 아래 옮기였다는 것이 백제(百濟) 본기(本記)에 대한 정당한 해석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이성산과 고골이 지척 지지인 것을 의논할 필요가 없다.

셋째 반대이유는 백제 본기에 온조의 말에 어제 날에 나아가 보니 한수(漢水)의 남방의 토지가 비옥하므로 저곳에 도읍한다 했으니, 이것을 보면 그때까지 온조는 한수 남방에 도읍하리라는 뜻이다. 그러면 온조가 처음 도읍한 곳은 한수의 남방이 아닌 것을 추측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이성산이 위례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남(河南) 위례성(慰禮城)이라는 것은 역사에 뚜렷한 정문(定文)인 만큼 사의(私意)로써 변경할 수 없고, 하남(河南)이라는 고정(固定)한 지명(地名)이 없는 이상에는 하남(河南)은 강남(江南)으로 해석하여야 할것이다. 또 강남은 그때의 역사적 사실로 보거나, 지리적(地理的) 조건(條件)으로 보거나 한강(漢江) 이남(以南)에 틀림없으니, 백제 본기에 한수 남방의 토지가 비옥하니 마땅히 저곳에 도읍한다는 뜻은 이때까지 한수 남방에 도읍하고 있던 온조왕이 다시 한수 남방 어느

지점(地點)의 신기지(新基地)를 발견하고 그 신기지를 가르켜 저곳에 도읍한다 한 것이니, 저곳이라는 것은 그곳이라는 뜻이다. 그때에 온조의 심경이 외적을 염려한다는 것보다도 기실은 재앙을 피하는데 목적이 있는 고로(온조의 천도 이유가 동의 낙랑과, 북의 말갈에 있다 한 것은 예언에 불과하다) 구태여 다른 지방으로 갈것이 아니라 가까운 한산 아래에 책(柵)을 세우고 왕의 거소(居所)를 옮긴 것이다. 백제사(百濟史)에는 온조왕 十三年에 왕모가 별세하고 한산 아래에 책을 세워 위례성 백성을 옮기고 사신을 마한(馬韓)에 보내어 도읍을 옮긴 것을 고하고 대궐을 짓고 十四年에는 도읍을 옮기고 十五年에는 새 궁실을 지었다 하니, 十四年에 도읍을 옮기었다 하면서 十三年에 마한(馬韓)에 도읍을 옮긴 것을 고하였다는 것이 어찌 모순(矛盾)이 아니며, 十四年에 도읍을 옮겼다 하면서 十五年에 새궁실을 지었다는 것이 어찌 선후(先後) 도착(倒錯)이 아니라 생각컨데 도읍을 옮긴다는 것은 왕궁(王宮)과 정부(政府)가 옮기는 것을 이름이니 왕궁과 정부는 멀리 떨어져 있을수는 없는 것이다. 온조왕 十三年에 위례성(이성산)에는 백성들이 충만하고, 또 왕이 왕모의 별세와 요성이 보이는것을 근심하여 위례성에 있기가 일시에 민망하여 지척지지(咫尺之地) 조석(朝夕)으로 왕래(往來)할 수 있는 한산 아래(고골)에 터를打好 위례성 백성을 옮기고 그곳에 임시로 왕궁을 짓고 왕이 그곳으로 옮긴것이다. 그러므로 마한(馬韓)에 도읍을 옮겼다고 통고한 것이다. 그러나 한산 아래에는 대궐 역사가 전행중인고로 정부는 아직 위례성에 남아 있다가 十四年에 비로소 한산 아래에 옮긴 것이니, 그러므로 백제사(百濟史)에 온조왕 十四年에 도읍을 옮겼다라고 한 것이요, 임시 왕궁이 불완전한 고로 十五年에 다시 정식으로 새 궁실을 건축한 것이다. 이것이 백제사에 대한 무난한 해석이다.

그러면 위례성과 한산 아래는 가까운 곳이 분명하고, 그러므로 온조왕이 한산 아래에 옮긴 것은 도읍을 옮긴 것이 아니라 내용은 도읍을 확장하는데 불과한 것이니, 근초고왕 이십육년(王濟史 近肖古王二十六年)에는 이도한산(移都漢山) 문주왕(文周王) 원년(元年)에는 이도웅진(移都熊津) 성왕(聖王) 십육년(十六年)에도 이도사자(移都泗)라 하면서 온조왕 十四年 한산 아래에 대하여서는 이도(移都)라 하지 않고 천도(遷都)라 한 것은 특별히 이것을 구별하기 위한 까닭이다. 혹은 위례성으로 부터 한산 아래에 옮긴 것을 확장이라 하면 백제사에 어찌 도읍을 옮겼다 하였느냐할 것이다. 그러나 한산 아래(고골)가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위례성(이성산)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은 사실이니 위례성에 있는 왕의 거소(居所)를 위례성 테두리 밖에 옮긴 것이므로 백제사에 천도(遷都)라 한 것이니, 지금의 학술(學術) 용어(用語)로서는 국

도(國都) 확장(擴張)이라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그러면 위례성과 한산 아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온조왕이 저곳에 도읍한다고한 저곳이라는 뜻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여 위례성이 한수 이남이 아니라는 것은 부당한 말이다.

넷째 반대이유는 백제사(百濟史) 온조왕 十七年에 낙랑(樂浪)이 쳐들어와서 위례성을 불살랐다 하였으니, 만일 이성산을 위례성이라 하고 고골을 한산 아래라 하면 위례성과 한산 아래는 저척지지라 다같이 피해(被害)가 되었을 것 이어늘 백제사에 위례성만 기록하고 한산 아래에 대한 피해가 없는 것을 보면, 한산 아래와 위례성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분명하니 그러므로 만일 한산 아래를 고골이라 하면 위례성은 이성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골이니 이성산이니 하는 것은 지금 구별된 명칭이요, 온조가 한산 아래에 책을 세우고 위례성 백성을 옮진때의 한산 아래라는 곳은 따로 독립한 명칭이 없고 이성산(위례성)과 연접한 지방인 고로 온조가 한산 아래에 새 궁실로 이거(移居)한 후에도 한산 아래를 통하여 그전의 국도명칭인 위례성 그대로 부르는 것이니 그러므로 온조왕 十七年에 낙랑이 위례성을 불살랐다는 것은 낙랑군사(樂浪軍事)가 백제 도성지방에 침입하였다가 백제군에게 격퇴되고 그때에 백제 도성 명칭이 그전과 같이 위례성인 고로 사가(史家)에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만일 그렇다면 어찌 도성(都城)을 불살랐다 하지 않고 위례성을 불살랐다 하였느냐 하는 자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백제사에 온조왕 八년에 말갈(靺鞨)이 위례성을 에워쌌다는 것을 보면, 온조왕 八년에는 위례성이 당연히 국도(國都)임에도 불구하고 도성을 에워쌌다하지 않고 위례성을 에워쌌다 하였으니 이러한 선례(先例)로 보아 온조왕 十七年에 위례성을 불살랐다한 것만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 이성산이 위례성이 아니라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이성산은 온조왕 원년(檀紀二三一六年)으로부터 十四年간 백제의 구도(舊都)이다.

5. 아차산성터(峨嵯山城址)

이밖에 한강(漢江) 연안(沿岸) 광나루 뒤에 속칭 액계산이라는 산위에 옛 성터가 있고 그곳에 수정궁(水晶宮)이 있었다는 고대전설에 의하여 액계산을 위례성이라는 자가 있다(액계산은 서울로 부터 동방十五리 가량 평야를 지나서 한강 서북편에 있는 산이름이니 한강을 경하여 서광주평야(西廣州平野)와 상대하고 우리나라에서 둘째로 길다는 광진교(廣津橋)가 한강을 건너 있다), 그러나 액계산은 한강 서북에 위치한 고로 하남(河南)이 아니요, 지형으로도

북에 한수가 있는 것이 아니며 산정(山頂)이 경사(傾斜)하여 궁실을 지을만한 곳이 못되고 성터에는 참고할 만한 아무 고적이 없으니 위례성이라 할 수는 없다. 성터가 이성산과 같이 전부 무너져서 겨우 형용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고대의 유물로 짐작할 수 있으니 백제사(百濟史) 온조왕 十四年 한강(漢江) 서북(西北)에 성을 쌓았다는 것이 이곳이 아닌가 생각된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개로왕(蓋離王) 二十一년에 고구려왕 거련(巨璉)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왕도(王都) 한성(漢城)을 에우니왕이 성문을 달고 출전(出戰)치 못하는 고로 고구려군이 사면으로 협공(夾攻)하고 바람을 타서 불을 놓아 성문을 불살르는 지라 혹은 나아가 항복코자 하는 자가 있으니 왕이 어찌할 줄을 몰라 성문(城門)을 나와 서편(西便)으로 달아나다가 고구려군에게 잡혔다 하고(三國史記 盖離王二十一年秋九月麗王巨璉師兵三萬來圍王都漢城王閉城門不能出戰麗人分兵四通挾攻又乘風總火焚燒城門惑有欲出降者王窘不知所爲領數十騎出門西走麗人追而害之云云) 백제사(百濟史)에는 개로왕 이십일년에 고구려군이 쳐들어와서 북성(北城)을 七일만에 함락(陷落)하고 남성(南城)을 치니 남성이 위급하므로 왕이 성문을 나와 도망하다가 고구려장군 결루(桀婁)에게 불들려 말에 나려 절하니 결루가 왕의 얼굴에 침을 뱉고 아차성(阿且城)에 끌려가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百濟史蓋離王二十一年高句麗對盧再會桀婁年古爾萬等率兵來攻北城中弑之云云) 지금 애개산의 별명을 아차산(峨嵯山)이라 부르고 산 아래 촌락 아치울을 아차동(峨嵯洞)이라 하니 옛날의 아차성(阿且城)이나 지금의 아차산이나 아차라는 음(音)은 서로 같고, 또 우리나라 말에 산(山)도 재라 하고 성(城)도 재라 하는 고로 옛날의 아차성(阿且城)이 지금 아차산(峨嵯山)으로 행세하게 되고, 그러므로 지금 아차산 위의 성터는 옛날의 아차성(阿且城)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을 인정할 만한 충대한 참고자료가 몇 가지 있으니, 첫째 삼국사기의 왕도(王都) 한성(漢城)이라 함은 시대(時代)로 따져보아 백제 제一三대 근초고왕이 도읍을 옮긴 한산(漢山)을 이름이요, 백제사에 남성 북성이라 함은 백제의 국도를 방어하는 성자(城砦)가 남북 두곳이 있던 모양이다. 그러므로 근초고왕이 도읍을 옮긴 한산이 지금 광주 남한산성이라면(後文山條參照) 삼국사기에 고구려군이 한성을 에워쌌다는 한성은 남한산성을 가르친 것이요, 백제사 개로왕 때 최후로 함락된 것이 남성(南城)이라 하니 그러면 남한산성은 개로왕대의 남성(南城)이요, 개로왕이 남한산성에 있다가 성문을 나와 서편으로 도망한 것으로 인정(認定)된다(삼국사기에는 고구려군이 왕도 한성을 에우니 왕이 성문을 나와 서편으로 도망하였다 하고 백제사에는 고구려군이 북

성(北城)을 침략하고 남성(南城)을 치니 왕이 도망하였다고 하니 삼국사기의 한성(漢城)이라는 곳이 백제사의 남성(南城)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남한산성 서문(西門)밖에는 서광주평야(西廣州平野)가 있으니 그때에 개로왕이 서광주평야로 도망하다가 고구려군에게 불잡힌 것이라 하겠고, 아차산(峨嵯山)은 서광주평야의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이 점으로 보더라도 아차산을 옛날의 아차성이라 할 수가 있다.

둘째로 삼국사기의 고구려왕 거련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 왔다는 것을 보면 거련은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의 이름이니 장수왕이 친히 백제를 치러 나왔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고구려 군사가 개로왕을 끌고 아차성 까지 간것은 장수왕에게 마치기 위함이니 그러면 아차성은 그때에 고구려 군의 대본영(大本營)이 되여 장수왕이 친히 그곳에 주재하고 전선(前線)을 지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강남안(漢江南岸)에서는 남한산성까지 불과 二十里밖에 안되니 아무리 승승장구(乘勝長驅) 하는 고구려군이라 할지라도 한강을 건너 적국의 도성을 눈앞에 두고 배수진(背水陣)을 쳐가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왕의 대 본영 기지(基地)로 가장 적당한 곳이라 할 것이다. 아차산의 성터는 둘로 쌓였다. 백제를 치러오는 고구려군이 창출간(倉卒間)에 둘로성(石城)을 쌓을리가 없으니 상상컨데 백제 온조왕 十四年에 한강서북에 아차성(阿且城)을 쌓고 군사를 두어 성을 지키다가 개로왕때에 고구려군에게 점령되고 고구려 장수왕은 이곳에 진주하여 한강을 격하여 건너편 서광주평야와 남한산성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한강의 도하작전(渡河作戰)을 지휘하고 도하작전이 성공되어 한강연안 일대의 백제군의 성자(城砦)를 무찌른 후 (백제百濟)의 사성 풍납리(風納里) 토성(土城)이 모두 한강남안(漢江南岸)에 있다) 다시 수도(首都)에 대한 총공격을 행하여 먼저 북성(北城)을 침략시킨 후에 남성(南城)을 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차산 성터는 옛날의 아차성(阿且城)이요, 아차산성에는 고구려의 대본영이 있던 곳이라 추측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아차산 성터는 위례성이 아니다. 수정궁(水晶宮)에 대하여는 참고할 기록이 없으니, 혹은 백제때 아차성에 수성군(守城軍)을 두었다 하여 수성군이 후세에 와전되어 수정궁이라 하는지도 모르겠다.

주(註) —고사(古史)에 보면 고구려의 장성(長城)과 수정궁(水晶宮)이 유명하였다 한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아차성(阿且城=峨嵯城)을 점령한 후 그곳에

수정궁을 건축한 것이라 하는 자가 있을지 모르나 장성(長城)이라는 것은 압록강 연안에 쌓은 것이요, 또 장수왕 이후의 고구려 국도는 평양(平壤) 아니고 고구려가 그러한 건물을 건축하려면 국도의 부근이나 국가의 중심(中心) 지역(地域)에 건축할 것이라 구태여 새점령지(新占領地)로 혼벽되게 한편에 떨어져 있는 아차산에 수정궁을 건축할리가 없다. 그러므로 아차산의 수정궁을 고구려때의 수정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6. 선리(船里)

또 어느 사가(史家)는 광주군(廣州郡) 동부면(東部面) 선리(船里)=속칭 둔지(俗名屯池)에 토성 자육이 군데군데 있고(전문 사성조 참조 前文蛇城條參照) 지형이 부아산 상에서 온조 신하들이 말한바와 방불하여 지난 을축년(乙丑年=檀紀四二五八年) 홍수때에 부락四十여 호가 전부 유실되고 땅속으로 부터 무수한 고기(古器)와 파와(破瓦)가 발견됨으로 인하여 선리 부근을 위례성이라고 의심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선리도 평야중의 토성이고, 해마다 강물이 넘치는 피해가 많으므로 도성으로 선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풍납리가 위례성이 아니라면 선리는 위치로 보아 더욱 위례성이 아니라 하겠다. 선리의 토성의 자육은 강안(江岸)을 따라 길게 뻗어 있을 뿐이요, 둥글게

서 쌓은 형적이 없으니 이것은 백제때의 사성 전문참조(前文參照)의 일부분 이라고는 할지언정 도성(都城)이라고는 못한 것이다. 을축년 홍수때의 선리 부근에서 발견된 고기, 파편속에 해구(蟹口)라 조각한 것이 있었으니 해구가 백제때 선리의 지명(地名)이 아니던가 생각된다. 선리를 해구라 할만한 이유가 있으니 해천(계내蟹川)이 이성산에서 발원(發源)하여 구천면(九川面) 상일리(上一里) 평야를 지나 선리에서 한강(漢江)에 들어갔다. 지금 상일리부락을 계내(해천蟹川)라 부르니 옛날의 선리를 해천(蟹川)이 한강(漢江)에 들어 가는 입구(入口)라 하여 해구라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선리는 백제때의 해구(蟹口)라는 지방이요, 위례성은 아니다. 백제의 향가(鄉歌)에 명월포가(明月浦歌)라는 노래가 있다 한다. 그 내용이 어찌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동부면 망월리(望月里) 부락을 속칭 멍덜개라 하는 것을 보면, 멍덜개가 백제때에 명월포(明月浦)가 아니던가? 백제 왕도가 고골에 있을때에 그 근처 지방을 두고 읊은 노래가 상당히 있던것 같으나 참고할 자료가 없다.

7. 한산하(漢山下)

이상 여러가지 설명을 종합하면 결국 이성산을 위례성이라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다음은 온조왕 十三年에 한산(漢山) 아래에 책(柵)을 세워 위례성 백성을 옮기고 十四年에 도읍을 옮겼다는 한산하(漢山下)라는 땅은 어느 곳인가? 한수 남방이 토지가 비옥하니 마땅히 저곳에 도읍하리라는 백제사에 온조왕의 말한것을 보면 한산(漢山)이 한수남방(漢水南方)에는 있는 것이 분명하고 한강남방(漢江南方)에는 남한산(南漢山)밖에 없으니

[고 . . . 풀]

그때에 한산 아래라는 땅은 광주 고풀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고풀은 남한산 북록(北麓) 아래에 있으니 남한산의 북쪽 출기가 좌우로 나누어 서편 출기는 이성산이 되고 동편출기는 객산(客山)이 되었다. 고풀은 이성산과 객산(客山)의 적은 평야(平野)로서 북으로는 한강유역(漢江流域)을 통하고, 서편과 남편과 동편에는 산악이 에워쌌다. 고풀 평야(平野)를 관류(貫流)하는 일조장천(一條長川)이 한강(漢江)을 향하여 흐르니 고대(古代) 도성(都城)으로는 홀륭한 위치라 하겠다. 고풀은 서부면(西部面) 상사창리(上司倉里)

部面) 교산리(校山里)를 포함하여 고대(古代) 도시(都市)로서는 규모도 적지 아니하다. 각처에 개와 조각이 산적하고 초석(礎石)과 석난(石欄)이 밭가에 드문드문 있으며 산곡간에는 무수한 불상(佛像)의 깨여진 것이 흩어져 있고, 동편 산복(山腹)에는 성첩(城堞)을 쌓았던 자욱이 남아 있으니 누가 보던지 고대(古代) 도시(都)라 할 것이다.

이성산이 옆에 있는 것을 보면 온조왕이 위례성으로 부터 고풀에 도읍을 확대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고풀이 백제때에 한산 아래라는데 대하여는 역사가(歷史家)의 거의 일치한 통설(通說)이다. 그러나 정다산강역고(丁茶山疆域考)에는 고풀을 위례성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한산 아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터인데 그것이 없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고풀은 온조왕 十四年(檀紀 二三二九年)으로부터 근초고왕 二十六년(檀紀 二七〇四年)까지 二百七十四년간 백제구도(百濟舊都)이다.

8. 남한산성(南漢山城)

백제의 국도가 남한산 아래에 있을 때에는 한강북방에 있는 한산을 특별히 구별하기 위하여 예(例)하면 제四대 개루왕(蓋婁王) 五년에는 북한산성을 쌓았다 하고, 제十一대왕 비류왕 二十四년에는 내신 좌평우복(佐平優福)이 북한

(北漢) 산성에서 반(叛)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근초고왕이 북한산에 옮긴 것이라면 으레히 북한산에 도읍을 옮겼다 할 터인데 사기(史記)에 그렇지 않고 다만 한산에 도읍을 옮겼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남한산아래 고골에 국도가 있을 때에는 국토의 진산(鎮山)인 남한산을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고로 다만 그대로 한산에 옮겼다 한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남한산성에 있는 허다한 고적은 백제의 구도(舊都)인 것을 증명하는 충분한 재료에 남음이 있다. 남한산성은 근초고왕 二十六년(檀紀 二七〇四年)으로 부터 개로왕(蓋幽王) 二十二년(檀紀 二八〇八年)까지 백사년간(百四年間) 백제의 구도(舊都)이다.

그러나 남한산성이 한산이라는 데 대하여 중요한 반대가 있다. 백제사(百濟史)에 고구려 군사가 먼저 북성(北城)을 함락시키고 후에 남성(南城)을 쳤다는 것을 보면 그때의 국도는 남성, 북성으로 나누어 있던 모양인데 만일 남한산성을 한산이라 하여 개로왕때의 국도라 하면 남한산성은 단일성곽(單一城郭)이요. 그밖에 남성이니 북성이니 할것이 없다(지금 벌봉과 한봉(汗峰)에 외성(外城)을 쌓은 것은 이조 숙종대왕(肅宗大王) 때에 쌓은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은 백제 개로왕때의 도성이 아니요, 따라서 남한산성은 한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생각컨데 한산 아래와 한산은 서로 연접한 지역인 만큼 비록 한산에 도읍을 옮겼다 할지라도 그전 도읍 한산 아래에 대한 방비를 소홀하게 못할것이다. 그런데 남한산성을 한산이라 하고, 고골을 한산 아래라 하면 아무리 남한산성에 옮긴 후에라도 남한산성의 중요보장(重要保障)되는 고골의 방비를 또한 염중하게 하여야 할것이니 개로왕이 한강연안에 둑을 쌓아 사성(蛇城)의 동으로부터 송산(崇山)의 북에 이르렀다 한것은 그 까닭이다. 그러므로 백제 국도가 남한산성에 옮긴 후에도 북방에 연접한 그전 도읍 고골을 북성이라 하고, 새도읍 남한산성(新都南漢山城)을 남성이라 하여 다같이 수도방위(首都防衛)에 중요한 역활을 한것이요, 개로왕때에 고구려군이 먼저 고골을 함락시킨 후에 남한산성을 친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第2節 南漢山城의 沿革과 丙子胡亂

남한산성은 백제 근초고왕 二十六년으로 부터 개로왕 二十一년 까지 그백사년간 백제의 수도로 있었더니, 고구려의 판도가 됨으로 부터 한산군(漢山郡)이라 부르다가 신라가 점령한 후에는 한산주(漢山州)라 하였다. 신라 진흥왕(眞興王) 때에는 남산주(南山州)라 고치고, 문무왕(文武王) 때에는 주장성(晝長城)을 쌓았다(이것은 백제때의 성터를 보강 확장한 것이라 생각된다) 성덕왕(聖德王) 때에는 한주(漢州)라 개칭 하였으며, 고려(高麗) 태조(太祖) 때에는 광주(廣州)라 하여 관내도(關內道=지금 京畿道라는 명칭과 같은 것)에 속하고 목사(牧使)를 두었으며 현종(顯宗) 때에 거란(契丹)이 침입하므로 왕이 광주에 피난하였다가 평란후에 돌아갔으며, 공민왕(恭愍王) 때에는 흥건족(紅巾賊)이 침입하여 왕도(王都), 송경(松京=開城)이 함락됨으로 복주(福州=慶北 安東)에 파천(播遷)하는 도중 광주에 임시 주예(駐輿) 하였다. 이조초(李朝初)에는 경기좌도(京畿左道)에 속하고, 연산군(燕山君) 때에 양재역(良才驛=언주면(彦州面) 속칭(俗稱) 계리(契里) 군(君)을 비방(誹謗)하는 벽서(壁書)가 첨부되었으므로 광주 사람의 소행이라 하여 그 죄로 광주를 혁파(革羅) 하더니 그후 명종(明宗) 때에 회복하여 목사(牧使)를 두고 인조二년(仁祖二年)에는 총융사(總戎使)를 두고 이서(李曙)를 택하고 이서에게 산성을 다시 쌓게 하였다. (盡長城이頽落함으로 다시 수축했다) 四년(檀紀 三五九九年)에 성역(城役)이 고준(告竣) 하니 사대문(四大門)에 십육개(十六)의 암문(暗門)이 있다. 총융사를 수어사(守禦使)로 개칭하여 이서로 목사를 겸하게 하고 읍치(邑治)를 산성에 옮겼다 (그때까지 산성에는 군관이 주재하고 행정관(行政官)은 고골에 있었다) 十四年에 왕이 산성에 파천하여 병자호란(丙子胡亂)을 겪고 十五年에 목사를 부윤(府尹)으로 승임(昇任)하고 숙종(肅宗) 때에 부윤을 류수(留守)로 승임하여 수어사를 겸하게 하더니 후에 류수를 파(罷)하고 다시 부윤을 두고 순종(純宗) 때에 부윤을 파하고 군수(郡守)를 두더니 왜정(倭政) 때에 잉습(仍襲)하고 후에는 읍치(邑治)를 경안(京安=광주군 경안리)에 옮긴 후로는 중부면(中部面) 산성리(山城里)로 편입 되었다.

산성의 주위는 六만二千九百七拾보(步)라 하니 약十七리반 가량이며, 성의 높이는 약二十四척(尺)이다. 산성의 동문을 좌익문(左翼門), 남문을 지화문, 서문을 우익문(右翼門), 북문을 전승문(全勝門)이라 불렀다. 이서의 축성 후 三백여 년간 성첩과 누각이 파괴를 거듭할 뿐이더니, 읍치(邑治)가 경안으로 이전된 뒤에는 더욱 성내가 소조하고 거민(居民)이 이산(離散) 하여 군청(郡應)이 있

을 때에는 천호를 바라보던 민호(民戶)가 지금은 七·八十호가 불과하고 그 것 조차 생업을 잃어 모두 화전민(火田民)이 되었다. 그후 六·二五 사변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병화(兵火)의 세례를 받아 그나마 형체를 보존치 못하고 남화류북단풍(南花柳北丹楓)이라 예로부터 나려온 승경(勝景)은 찾아 볼 길이 없고 수천년간 선배(先輩)의 고심 경영하던 결정이 일조에 없어진 것은 이 나라 백성으로서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참상이었다.

남한산성은 국립공원(國立公園)으로서 충족할 만큼 명소고적이 많다. 그리하여 뜻있는 자들이 국립공원화코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또 상부행정 당국에 품신하여 왔다. 이에 깊이 개탄하신 대통령 이승만 박사(博士)께서는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고적을 보존하여 국보적으로 이 나라의 위대한 업적을 영구히 빛나게 하려는 성의로써 남한산성 국립공원을 설치하는 동시에 일선 수리하여 장려한 풍광이 우리나라에 유품되는 지위를 차지하니 우리 남한산성을 위하여 크게 경하할 일이며, 이 대통령의 천추공적(千秋功蹟)을 길이 찬양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五·一六후 국립공원안은 무산되고 도립공원으로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산성리(山城里) 정석창(鄭錫昌)씨 말에 의하면 다른지방의 성은 장방형의 평평한 돌을 쌓은 고로 하층이 무너지면, 상층도 무너지게 되나 남한산성 돌은 둥글고 끝이 뾰족한 돌을 쌓은 고로 하층이 무너져도 상층이 무너지지 않는다. 六·二五 병난때에 포탄이 성벽에 떨어져 성의 중층이 무너졌으되 상층은 조금도 이상이 없으니 이것이 남한산성 축성의 특색이라 한다.

1. 병자호란(丙子胡亂)

이조 인조대왕(仁祖大王) 시대(時代)의 병자호란은 백제의 천도(遷都)에 못지 아니한 이땅의 중대한 사건인 고로 사실을 대강 기록한다. 이조 광해군(光海君) 때의 여진족(女眞族)이 만주에서 궤기하여 추장(酋長)을 한(汗)이라 부르고 국호를 청(淸)이라 하여 자주 명국(明國)의 변경을 침범하니 명국에서 크게 근심하여 우리나라에 구원을 청하였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 명국의 절대한 원조를 입어 평난되었던 터라 명국의 요청을 거절치 못하나 잘못하면 우리나라 까지 휩쓸려 들어갈까 염려하여 광해군은 가만히 구원장 강홍립(姜弘立)에 밀명(密命)하여 함부로 한에 적대하지 말고 형세를 보아 선처하라고 했다. 과연 홍립은 한(汗)에 내부하여 우리나라와 한과의 사이에는 큰 혼란이 없이 지내더니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반

정함에 국시(國是)가 일변하여 한에 대한 유화정책(和政策)을 포기하고 절대친명주의(絕對親明主義)를택하여 한을 배척하니 한이 노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와 선봉이 우리나라 황해도 평산에 이른지라 왕이 강화에 피난하였다가 한과 형제지의를 맺고 화해하니 이것을 정묘맹약(丁卯盟約)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한을 배척하는 정신은 항상 불변하던 중 한이 스스로 황제위(皇帝位)에 오르고 천자(天子)라 일컬고, 이 뜻을 우리나라에 통고하여 왔으니 이것은 국제적 승인을 요구함이다.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최명길(崔鳴吉)외에는 여러 신하들이 모두 반대할 뿐더러 八도의 유생(儒生)들이 연명상소(連名上疏)하여 한과 절교(絕交)하기를 전의하였다. 이와같이 이에 대한 국책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던중 왕비(王后) 한씨(韓氏) 승하(昇遐)하였음에 이듬해 병자년(丙子) 봄에 한의 사신 용골대(龍骨大), 마보대(馬保大)등 수十인이 조상을 나왔으니, 표면으로는 조상(弔喪)이라 하나 구실은 우리나라 조정의 내정을 탐지코자 함이였다. 왕은 거절치 못하나 오랑캐의 조상을 차마 받을 수 없다하여 금천교(禁川橋)위에 거짓 상청을 베풀고 포장을 들려치고 포장뒤에 군사를 세워 만일의 경우를 경계하게 하고 조상을 받게하니, 용골대, 마보대등이 상청에 들어와 분향(焚香)재배(再拜)하다가 홀연 큰바람이 불며 포장이 제쳐지고 포장뒤에 군사가 칼을 집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도망하니 이로부터 관계가 일층 혐악하게 되었다.

병자년(丙子 十四年) 十二月 十三일에 한이 대군을 거느리고 돌연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선봉이 안주(安州)에 이르렀다는 장계(狀啓)가 올라 오더니, 불구(不久)에 도원수(都元帥) 김자점(金自點)이 황해도 토산에서 패하고 아군이 연전연패하는 지라十四일에 왕은 김경징(金慶徵)으로 강화(江華) 겸찰사(檢察使)를 배하여 묘사(廟社)와 빈궁(嬪宮) 대군(大君) 일행(一行)을 호위하여 강화로 피난케 하고, 다음十五일에 왕의 일행이 또한 강화로 향하여 떠날새 청파(淸坡)에 이르러 들으니 정병이 벌써 근교(近郊)에 범하여 전로(前路)의 양천강(陽川江)을 차단 하였다 하는지라 왕은 할 수 없이 서울 남대문에 돌아오니 최명길이 자원하여 홍제원(弘濟院)에 나아가 적장 마보대와 수작하니 그동안의 시간을 이용하여 왕은 구리개(銅峴=을지로一가)를 지나고 광화문(光熙門=속청 시구문이니 옛날에 을지로六가 근처에 있었다)을 나와 한강을 건너 광주 송파(松坡)에 이르러 남한산성을 향하였다.

캄캄한 밤중에 눈과 비가 나리는 고로 산성 남문으로 가야 할것이 어늘 잘 못되어 서문길로 들어서서 천신만고 끝에 겨우 남한산성 행궁에 이르러 이튿날 새벽에 다시 군신의 전의에 의하여 강화로 향하고저 산성 남문을 나왔으

나 전날밤에 왕이 발꿈치를 상한 것이 몇나서 가지 못하고 다시 산성에 돌아와 산성을 지킬 대책을 정하니, 그때에 산성에 있는 우리 군사가 겨우 일만~천명이라 하였다. 十六일부터 한의 군사가 산성의 주위를 철통같이 포위하니 우리 군사는 성첩을 들려 수비하고 조정 백관은 교대하여 각각 요지를 지키었다. 이에 우리 군사는 용전감투하여 여러차례 적군의 습격을 물리치고 만부 부당의 천연요새(天然要塞) 산성이라 적군은 다만 포위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강화가 합락되어 빙궁과 대군 일행이 사로 잡혔다는 비보가 전할 뿐더러 성중의 식량이 떨어져 군사가 반란을 일으키려 함에 왕은 할 수 없이 파천한지 四十五일 만인 다음해 정축년 정월(正月) 三十日에 산성을 나와 한강연안 삼전도(三田渡=中垈面은 現今 서울시에 편입됨)에 나와 항복하였다.

이것이 우리 민족 만대에 수치스럽고 피비린내 나는 병자호란의 일편역사(一片歷史)이다.

2. 병자호란(丙子胡亂)과 남한산성(南漢山城)

丙子年의 禍는 實로 慘酷을 極하여 무엇이라 記할 수 있으랴! 그리고 어떻게 더 말할 수 있으랴, 벗돼지처럼 서둘하여 오고 벌떼처럼 群侵하여 들어오는 胡賊들 이언만 너무도 마구 달려든 變이였었고, 갑자기 일어서 不過十餘日 사이에 三都가 뒤엎어지고 京鄉이 젓더미로 化하였으며, 萬百姓이 魚肉이 되었으며, 天地가 號哭群으로 가득한데 馬胡들의 말발굽소리는 八道를 縱橫하고 清汗의 오만은 目不忍見의 지경에 이르렀다. 大駕가 서울을 떠나시고 열마후 鐵石같이 밀었던 江都가 합락되었다. 賊들의 갖은 약탈과 放火로 公私가 모두 灰盡되었으며 無主城都엔 盜賊이 들끓어 밤낮이 없으매 그나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짧은 時日이였지만은 其被禍와 出血은 壬辰倭亂 때 보다도 더 甚하였으며 二聖(王과 世子)께서 出城하여 三田渡의 무릅뚫어 우리나라 歷史에 일찍없던 굴욕을 당하시고 東宮과 大君께서 또한 異域으로 잡혀가 불모로 十餘星霜 온갖 모멸과 능욕의 수난을 당하고, 士大夫집 婦女들이 저들에게 더럽혀지고 上下貴賤없이 포로가 되었으며 數를 헤아릴 수 없이 數많은 將卒들이 아무런 값어치없이 싸우다 죽어갔다. 그래도 끝내 城을 지키였으되, 馬胡앞에 聖王께서 무릎을 끓어 君臣의 義로서 盟約을 맺고 二百數十年間 清汗의 더러운命을 따르었으니, 이는 千古에 없었던 치욕이며 뼈를 깎는 아픔이다.

오늘에 사는 우리의 통분함도 이와같거늘 하물며 其날의 슬픔과 분통은 어

떻겠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뿌렸한 기록은 없으되 다행이 傳하여지는 몇몇 기록을 보더라도 답답함과 울분을 禁치 못하겠다. 바르게 君主를 보필하여 나라의 富強을 도모하여야 할 충신들은 壬辰以后의 더욱 甚하여진 黨爭과 私利私欲에 어둡고 눈멀어 날로 격변하는 外勢를 밝게 把握하지 못하였고, 안으로 밀려오는 大勢의 對處할 賢明을 지니지 못하였으며, 나약한 君主는 世論과 黨論에 英斷을 내리지 못하고 제제다사들과 文臣들의 客論客訴에 혼미를 거듭하는 時日만 보내다 及其也是 胡汗의 말발굽 아래 千萬年 쟁을 수 없는 恥痕을 남기었으며, 歷史上 일찍 없었던 오욕의 傷痕을 남기었다.

일찍 馬胡는 北國땅에서 女眞과 풍고를 제압하고 天下에 其勢를 멸치어 王天下하고자 주소를 가리지 않고 면면역적하거늘 이땅 士大夫들은 오직 몇몇 偉人們이 장담과 거짓말만 믿고 당리당쟁의 악귀다툼이 되여 朝廷에 寧日이 없었고 邊城을 지키는 將卒들은 永日의 平和인냥 술탄령으로 세월을 보냈었다 하니 其날의 慘禍는 차초자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곳 廣州에 孤城을 지키었던 將卒들과 이곳 고을백성들은 다르다. 일찍 李曜와 같은 先知가 있어 꾸준히 糧穀을 城內에 비축하였고, 오랜 時日 城郭을 다듬고 손질하였으며, 平素부터 깊은 愛鄉心과 憂國精神으로 낮에 밭갈고 저녁에 글을 익혔으며, 平生 몸과 마음을 같고 다듬어 나라의 이바지할 수 있는 부단의 力量을 기르고 가꾸었다.

數없이 많은 城域보수나 증개축공사에 협력하였으며, 많은 將卒의 뒷바라지를 하여 心身은 물론 한가족 일문이 궁핍함도 甘受堪耐하였다. 뿐만아니라 일단 유사시엔 男女老幼할것 없이 훠을 파고, 돌을 나르며 머리의 이고 등짐으로 저널러 지치고 지쳐 쓰러진자 不知其數이였으나 일찍 憎望의 소리 들을 수 없었고 오직 無窮한 나라의 榮光과 번영, 그리고 聖主의 만수무강하심만 염원하였다. 험준한 山城속에 近二個月을 유폐苦戰할 즈음 八道가 있으되 모두 오랑캐의 맡기고 고립무원속에 많은 나날을 버티면서 苦戰할제 이땅에 삶을 같이 하였든 鄉民들의 忍苦와 勞心은 말하지 않더라도 짐작이 가고도 남는 일이다

이렇듯 슬기롭게 대처하고 강인하게 버티였으며 終始一貫 나라의 이바지하였음을 아득히 먼옛날 三韓時代부터 角逐의 一端이 이땅 漢山一部에서 있었으며, 百濟의 溫祚王이 漢水를 두고 敵과 對치한바 있었고, 新羅가 고구려와 더불어 漢山과 漢水를 두고 進退를 거듭하였으며, 其后 高麗의 공민왕이 이땅 漢山에서 紅賊을 避하였다. 李朝中期 壬辰의 싸움에도 이땅이 倭賊들의 경로로서 말굽아래 짓밟혀 밀고 당기는 血戰을 거듭한 땅이기에 鄉人은 祖先以來 살고 떠여진 담력과 깊고 높은 愛國心은 물을 살어 시족이 되고, 살을 깨어

비육이 될 굳은 信念과 밝은 希望을 갖었기에 저 처절, 極한 丙子年の 苦難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끝까지 聖主가 머무르다 下城할 수 있었고, 또한 贊浸속에 많은 汚辱이 있으되 이땅 廣州고을을 더럽혔든 사람과 이야기가 없으며 오히려 가는곳마다 義利와 忠孝를 기리는 讀詞와 敬語가 不知其數이다. 위로는 守領方白으로 부터 밑으로는 산골작골작이에 老幼에 이르기까지 공지가 있었고 자랑이 있었다.

山野를 메워든 馬胡의 노략질속에서도 위로는 나라任의 安危를 근심하고, 아래로 鄉里를 가꾸고 돌보면서 軍馬를 거두고 城域補力의 最善을 다하였으며, 贊들의 劍戟아래 壯烈히 죽어갔다. 그리고 그 친란한 빛을 千古에 남기었다. 婦女는 치마가 닳어 떨어지고 손발이 트도록 주인의 뒤를 따라 贊을 막는데 온갖 心血을 기우렸고 마침내 其主人과 아비 죽으매 함께 自決하여 뒤를 따랐으며 其자식들 평소에 孝養하다 其父戰死하매 其子 싸움터를 해마다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其토록 燥烈하고 전률한 싸움이건만 廣州人의 氣質은 두려움을 몰랐으며, 뒤로 물려설줄 몰랐다.

이제 옛사람은 가고 말이 없으며, 옛자취는 하나둘 사라져 갔어도 其넋과 열은 남아 오늘도 친연이 빛나고 있다. 저山城 기위진 돌더미 하나하나에서 그리고 늙은 老松의 가지를 스치는 바람소리에서 無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듯 들려주고 있다. 丙子當時에 많은 비겁人們과 천루한 벼슬아치들이 있어 공리쟁명의 갑론을박이 연일연야 하였어도 오직 廣州人們의 후예들은 善戰善功하였으며, 오직 죽임이 있었을뿐 더러운 티끌은 없었노라고! 그리고 우리는 옛옛하였노라고!

第3節 山脈과 河川

우리나라의 조산(祖山)은 함경북도 백두산(白頭山)이다. 백두산 줄기가 남으로 뻗어서 분수령(分水嶺), 감토봉(甘土峯), 참두령(斬頭嶺), 황토봉(黃土峯), 성대봉(聖代峯), 후치령(厚致嶺), 하난령(何難嶺), 부전령(赴戰嶺), 천불산(千佛山), 황초령(黃草嶺), 낭림산(狼林山), 검산(劍山), 황방산(黃方山), 독유령(篤嶺), 장평령(長坪嶺), 거차봉(居次峯), 기린봉(麒麟峰), 곳여령(串餘嶺)이 되어 강원도 철령(鐵嶺) 고개에 이르렀다. 철령고개로 부터 두줄기로 나누어 한줄기는 서남편으로 뻗어서 여파령(餘波嶺), 백운산(白雲山), 화악산(華岳山), 천마산(天磨山), 불국산(佛國山), 주엽산(注葉山)을 지나 삼각산(三角山)이 되어, 한양(漢陽) 도읍터를 만들고, 한줄기는 남편으로 뻗어서 추지령(楸地嶺), 금강산(金剛山), 온정령(溫井嶺), 구령(狗嶺), 탄둔령(炭屯嶺), 직보령(直寶嶺), 오색령(五色嶺), 구룡령(九龍嶺), 대관령(大關嶺), 오대산(五臺山), 삽운령(搜雲嶺), 태백산(太白山), 예불산(禮佛山), 소백산(小白山), 죽령(竹嶺), 조령(鳥嶺), 속리산(俗離山)이 되고, 속리산에서 서편으로 향한 줄기가 박달산(博達山), 구룡산(九龍山)이 되고, 구룡산이 다시 북편으로 뻗어서 청주(淸州)의 당상산성(堂上山城)을 지나 충청북도 음성(陰城)의 구봉산(九峯山)이 되고, 구봉산이 북으로 뻗어서 평택(平澤)의 부아산(負兒山)과 용인(龍仁)의 석성산(石城山)이 되고, 북편으로 올라오다가 두 줄기로 나누어 원편 줄기는 수원(水原) 광교산(光敎山)이 되고, 바른편 줄기는 용인 보개산(寶蓋山)을 지나 용인 광주 사이에서 다시 갈라져 바른편 줄기는 오포면(五浦面), 낙생면(樂生面은 現성남시로 편입됨) 사이의 문현산(門懸山)과 오포면의 추령(秋嶺)과 오포면 도척면(都尺面) 사이의 태화산(泰華山)과 태화산 줄기의 마명산(馬鳴山)이 되고, 원편 줄기는 북으로 향하여 오다가 또 나누어 져서 한줄기는 광주면(廣州面)의 군월라산(軍月羅山)과 초월면(草月面)의 무갑산(武甲山)과 무갑산의 북에는 영적산(靈積山), 동에는 실촌면(實村面)의 원적산(圓寂山)과 연하고 다른 한 줄기는 남한산(南漢山)이 되고 남한산의 줄기가 북으로 향하여 바른편으로는 퇴촌면(退村面)의 광악산(廣岳山)과 동부면(東部面)의 금단산(黔丹山)이 되고, 원편 줄기는 서부면의 금암산(金岩山), 이성산(二聖山)과 이성산 줄기에 구천면(九川面은 現서울시에 편입됨)의 배봉(鷹峰)이 되였다. 남한산 서편 줄기는 서부면의 천마산(天馬山)이 되고 천마산의 산맥이 중대면(中垈面은 현서울시에 편입됨)에 들어갔다. 광교산 줄기는 두갈래로 나누어 원편 줄기는 시흥(始興) 관악산(冠岳山)이 되고 관악산의 산맥 우면산(牛眠山)이 언주면(彦州面은 현서울시 편입됨) 까지 뻗어

서 이조 성종대왕의 선릉(宣陵)과 중종대왕의 정릉(靖陵)터가 되고 바른편 출기는 또 다시 갈라져서 한 출기는 은주면과 사홍 사이에 청계산(淸溪山)이 되고, 다른 한 출기는 대왕면(大旺面은一部 서울市,一部 성남市에 편입됨)의 대모산(大母山)과 연주면(彦州面)의 구룡산이 되었다.

대모산 남편 기슭에 이조 태종대왕(太宗大王)의 현릉(獻陵)과 순조대왕(純祖大王)의 인릉(仁陵)이 있다. 광주의 하천(河川)은 모두 한강(漢江)에 들어갔다. 한강은 강원도 오대산(五臺山)에서 근원을 발하야 서남으로 흘러 충주(忠州)의 달천강(達川江=속리산으로부터 흘러오는 강물이다)을 합하고 다시 북으로 향하여 여주를 지나 지평(砥平)에서 이포(梨浦)와 신은천(新恩川)을 합하고 양평(楊平) 월계(月溪)를 지나 통진(龍津)에서 강원도 춘천(春川)으로부터 내려오는 소양강(昭陽江)을 합하고 광주의 남종면(南終面), 퇴촌면(退村面), 동부면(東部面), 구천면(九川面=현서울시 편입), 중대면(中垈面=현 서울시 편입), 연주면(彦州面=현서울시 편입)을 지나 서울 노량진 방면을 향하여 흘러 내려갔다.

광주는 산협이 많은 고로 산협속에서 흐르는 물이 많으니, 그중에서 큰 것만을 기록한다. 소내(牛川)는 퇴촌면에 있으니 광주의 제일 큰 내물(川水)이다. 용인과 여주로 부터 흘러오는 여러 갈래의 물을 합하여 광주면(廣州面)을 지나 퇴촌면에서 한강에 들어갔다. 숯내(炭川)는 용인 덕고개 근처에서 발원하야 풍덕내를 지나 광주의 낙생면(樂生面은 현성남시 편입), 돌마면(突馬面은 현성남시 편입), 중부면(中部面), 대왕면(大旺面은 현서울 1부, 성남시 1부로 편입됨)을 흘러 중대면(中垈面은 현서울시 편입) 삼전도(三田渡)에서 한강에 들어갔다. 양재내(良才川)는 판악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다가 청계산 방면으로 부터 내려오는 물을 합하여 광주의 연주면에서 한강에 들어갔다.

1. 名山 및 河川

광주는 광주산맥의 면추어진 곳으로 山勢는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나 險峻한 편으로 平均 4~5百乃至 6~7百餘m 되는 고지로서 용인과 이천군 및 양평군과 여주군하고 군계를 이루고 있으며, 幷風을 둘러 세운듯 성남시와 일부 서울시하고 경계를 接하고 있다. 山容은 낮은 편도 아니며, 또한 높은편도 아닌 중간 程度의 고지로서 三角山이나 冠嶽山같은 빼어남이 없는 土山으로一般雜木인 活葉樹 및 침엽수로서 이룩되고 있다. 地域이 廣闊하던 옛날에는 많은 名山 및 河川이 있었으나, 地域이大幅縮小된 금일에 있어서는 별로 뚜렸한 名山이 없고 다만 몇몇 峰巒이 있을 뿐이다.

주요산은 다음과 같다.

1. 金岩山(322 m) 西部面 内에 있다.
2. 二聖山(207 m) 西部面 内에 있으며 溫祚王 城址가 있다.
3. 正巖山(403 m) 南終面 内에 있다.
4. 海嶼山(531.4 m) 南終面에 있으며 退村面과 경계를 하고 있다.
5. 金鳳山(250 m) 南終面에 있다.
6. 국사봉(208 m) 退村面에 있다.
7. 冠 山(554 m) 退村面에 있다.
8. 鶯子峰(668 m) 退村面에 있으며 여주군 金沙面, 양평군 강하면과 경계를 하고 있다.
9. 清涼山(400 ~ 420 m) 중부면 산성리에 있으며 서부면과 경계하고 있고 山腹에 남한산 守御將台가 있다.
10. 汗峰(300 ~ 400 m) 중부면에 있으며 남한산 동쪽에 있는 산으로 舊名은 汗峰인데 胡難이 있을 있을 수 있다하여 城을 쌓았다 전한다.
11. 藥寺山 및 靈積山(400 ~ 420 m) 중부면 梧田里에 있으며, 光池院 뒷산이다.
12. 청용봉(250 m) 중부면 光池院 앞산이며 두세고개가 있다.
13. 黵丹山(542 m) 중부면에 있으며 성남시 銀杏洞과 경계하고 있다.
14. 國守峰(300 m ~ 350 m) 廣州面에 있다.
15. 文衡山(496.7 m) 五浦面에 있으며 廣州面 목리와 新峴里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16. 두리봉(777.8 m) 五浦面 檍自里에 있다. 그리고 군내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17. 佛俗山(335 m) 五浦面에 있으며 성남시 亭子洞 및 九美洞하고 경계하고 있다.
18. 白馬산(446 m) 五浦面에 있으며 五浦面 梅山里와 草月面 雙東里와 경계하고 있는 산이다.
19. 무갑산(578.1 m) 草月面에 있다.
20. 冠山(554 m) 草月面에 있으며 退村面 牛山里와 경계하고 있으며 東 은 圓積山과 連해 있다. 일명 牛山이라고도 하여 山下에는 天然炭酸水인 藥水가 샘솟고 있다.
21. 鶯子峰(666.8 m) 小鶯子(513.5 m) 實村面에 있으며 建業里 鶯子峰과 連해 있다.

22. 감투봉 (368 m) 實村面 五香里에 있다.
23. 天德峰 (606 m) 實村面 二仙里와 이천군 新屯面 長洞里 그리고 여주군 金沙面 走鹿里 사이에 위치한 險山이다.
24. 鼎蓋山 (406.7 m) 實村面에 있으며 이천군 新屯面 支石里와 新村里 사이에 있는 산이며 산모습이 높게 빼어나 솔모양 같은데서 이른 이름이다.
25. 국수봉 (437 m) 實村面에 있으며 都尺面 鎮牛里와 水陽里 사이에 위치한 산이다.
26. 發梨峰 (438.4 m) 都尺面 宮坪里 뒷 산이다.
27. 老姑山 (578.6 m) 都尺面 陶雄里에 있는 山으로서 용인군 慕賢面 莓潭里와 接境하고 있다.
28. 正光山 (550 m) 都尺面에 있으며 용인군 慕賢面과 경계하고 있다.
29. 泰華山 (645 m) 都尺面 祥林里 뒷 산이다. 五浦面과 都尺面 사이의 산으로서 與地勝覽에는 대해산이라고 하였다. 산의 남쪽 10 리許에 용인 땅이 있다.
30. 七侍山 351.1 m로써 廣州郡 송정리를 連한 巨峰이다.
- 이상의 산들은 大概가 土石山으로서 樹木이 鬱蒼하고 眺望이 良好하여 溪谷이 깊어 水聲이 늘 澄澈하다.

河 川

河川은 本郡의 남에서 동북方으로 흘러 한강으로流入하는 경안천과 河口附近에서 동북으로 흘러 合流하는 昆池岩川과 그리고 其支流인 老谷川, 그리고 서에서 동남으로 흘러 역시 경안천과 合流되는 樊川이 있을 뿐이다.

1. 경안천: 안성땅에서 發源하여 용인땅을 거쳐 廣州를 동북방으로 흘러 한강에流入하는 군내에 가장 큰 河川이며 장마철에는 水量이 많아 農耕의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 昆池岩川: 實村面 建業里 鷺子山에서 發源하여 서남으로 흐르다 다시 동북으로 흘러 경안천과 合流, 한강 八堂湖로 流入한다.
3. 樊川: 중부면 산성리 산에서 發源하여 東南으로 흘러 경안천과 사마루에서 合流하는 小河川이다.

以上과 같이 적은 河川이 몇個 있을 뿐이다.

한강~郡北界를 흘러 黃海에 流入하는 국내 有數의 큰江으로 金剛山에서 發源하여 삼백리를 西南流하는 북한강과 太白山에서 發源하여 千餘里를 흘러 서

북류하는 남한강이 郡北東界쪽에서 合流, 서울을 貫流하고 黃海로 흘러드는 大河로서 옛부터 舟運의 편이 좋았으며, 近日 서울(수도권) 一千萬의 식수와 산업용수를 供給하는 우리나라의 큰 첫줄이라 할만한 큰 강이다.

이강을 사이에 두고 양평군 및 양주군과 接境하고 있다. 옛날에는 이 강류를 이용 帆船과 뗏목이 흘러 내리는 水利의 편이 있었으나 近日에는 각종 内燃機關의 發達로 그 風物조차 求景할 수 없게 되였다.